

“도, 제2공항 여론조사 후속대책 손 뺐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여론조사 결과 따른 도정 방향성 없다” 질타 강동원 단장 “참고용 자료로 활용” 원론적 답변 반복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공식 전달한 가운데, 극명하게 갈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후속 대책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2차 회의에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제2공항 건설사업의 항쟁과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전체 의견과 성향을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게 나와 결국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결정이 나온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시나리오

라든지, 제주도정의 계획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강성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영천·효돈동) 역시 “국토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이후 앞으로 제주도의 진행 절차와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며 “찬·반에 따른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대비해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니 도의회라도 갈등해소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갈등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온 게 아니냐”며 “제2공항 건설이 결론되면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문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위원장, 김희현 의원, 강성용 의원.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지난 5년 간 도가 제2공항을 하겠다 하면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토부에) 갈등을 조속히 끝내달라든지 그런 (제주도의) 의견을 달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소한 업무보고엔 지역 주민의 그간 고통, 피해, 도의 대응책, 그러한 응역 결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도가 영혼을 갖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이

든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동원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여론조사는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자료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마을규약 표준안 TF 제안... 긍정답변 도출

■ 행정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

제주도의 변화된 사회상과 가치관변을 위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감사위원회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사진)은 이날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과 관련해 “우리 제주의 경우 만들어져 오려온 향약이 많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규약의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제안 후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돼 제주지역 마을은 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지만 정작 마을규약 표준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도 제안해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고, 또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을 준비할 때에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면서 풀뿌리 주민 참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여러 분야의 분들로 ‘TF’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가 공동사회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표준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이것을 마을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을회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 감소 및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진남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 들불축제 정체성 실종” 맹공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규모 축소·개최 목적 불분명 프로그램 고민 흔적도 전무”

오는 3월 열린 예정인 제주시 들불축제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고 축제 개최의 목적도 불분명해 축제 개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올해로 23회째를 맞고 있는 들불축제가 오는 3월 13일 개최될 예정이나 코로나19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고 있고, 축제 개최의 목적도 불분명해 축제 개최의 취지와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올해 들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축제의 개최목적이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도민 위로 목적인가 아니면 지역예술인 지원인가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불축제는 “새별오름

의 불봉기를 위한 개최인 것 같다. 관광객을 드라이브인으로 400대 총 1600명으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착순 응모를 하고 있는데, 신청조건이 적절

한지도 의문이다. 조건이 차량을 등

록해야 하고 ‘탑나는 전’ 5만원 상당 이상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좋지만 구매조건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온라인 영상공모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총 50편의 공연영상제작과 10편의 온라인 공연으로 지역예술인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산물 기획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취지는 좋으나 네이비쇼핑, 11번가 등 라이브 쇼핑방송행사는 굳이 들불축제 개최기간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굳이 들불축제 개최라는 명분으로 하지 않아도 될 행사이다. 비대면 축제 개최라면 축제 콘텐츠와 축제 개최 장소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들불축제 콘텐츠 및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모기자

해양수산정책 부실 추궁... 대안 마련 요구

■ 농수축경제위원회

“채낚기 등 경영난 심화”

제주도의 해양수산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서귀포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사진)은 이날 “최근 공치가 격이 전년 대비 2배정도 폭등해 갈치 잡이 어선인 채낚기 및 연승어가에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갈치 채낚기어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어업용 미끼 방동 금지 조정관세를 현재 26%에서 10%로 인하하라는 정부건의와 함께 부산 소재 수입업체에 대한 공치미끼 공급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 을)도 “도 차원에서 미끼용 공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미끼에 대한



실종조업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공미끼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해어선 알파레이더는 이동하는 물체(선박 등)의 방향과 속력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2020년 8개를 보급했고 올해는 1억2000만원을 투입해 근해어선에 6개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근해어선 360척 중 약 2.2%만 알파레이더를 설치했다”면서 연근해어선 안전강화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 검증에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알파레이더에 대한 실증검증결과 및 어민호응도 조사가 전무하다”며 연안해역에서도 어선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실효성 검증 후 알파레이더 장비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2021 노인스포츠지도자 국가자격 취득과정 개강

개요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응시 가능
- 수 강 료 : 50만원
- 계약이체 : 농협(해오름뇌과학연구소) 301-0229-9311-31(※카드결제가능)
- 교육시간 : 주말반(토요일 오후 13시 ~ 17시)
- 교육장소 : 제주시 도남로142 범야빌 101호 (해오름뇌과학연구소내 강의실)

교육기간

- 3월 : 13, 20, 27
- 4월 : 3, 10, 17, 24
- 5월 : 1, 8, 9

총 10회

필기접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접수	실기 및 구술 합격자 발표
4/15-23	5/15	6/3	6/4-6/11	7/15

주최 주관 (주)해오름뇌과학연구소
 상담 064-727-1297, 010-3639-3922

한문(동양철학)

小學堂은 한문고전과 동양철학을 “기초를 다지는 데 충실하며, 심화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즐겁게 공부”하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안내

요일	시간	수업내용	교육기간	수업시작일
월	오전 10시-11시 30분	음양철학 「주역원전 상경」	2년	진행 중
	오후 2시-3시 30분	【시작반】 사주명리/작명/9총나경	1년	3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9시	【시작반】 책읽기(2021년 산인력 중심/9총나경/사주명리)	1년	3월 10일

- 교육시작: 2021년 3월 8일~
- 모집인원: 교실별 5명~9명
- 수강료: 월 60,000원(월납기준)
- ※교재비는 별도이며, 「南山민력」은 수강신청 본인인 시증서점에서 구입해야함.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2층)
- 접수상담: [전화신청가능]
- ☎ 064-757-4561, H.P 010-3077-4561(원장)
- 교실별 수시모집.

院長/海山 李龍林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석사)
- 海峽 朴奎鉉先生 「소학, 수학(光州, 1984), 晚翠 魏啓通先生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수학(光州, 1986), 眞山 文瑞洙先生 「주역, 수학(光州, 1997), 大山 金瑞鏡先生 濟州 東方鳳鳴講堂 修了(濟州, 2003-2004).
- 소학당한문학원장(1989-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한문, 「생활역학, 강사(2011-현)
- 제주대학교 노인대학 「명심보감, 「대학, 「맹자, 「중용, 「주역, 「시경, 왕기강사역임(2010-2020)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역학강사(2010-2017)

제주시교육청 등록 177호
소학당한문학원

국민무로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취득과정

접수기간
2021년 1월 05일 ~ 2021년 03월 09일

교육기간
2021년 3월 29일 ~ 2021년 09월 24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시간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교육내용
전열, 조명, 동력설비, 배선, 배관, 태양광설비, 전기기사 필기·실기, 신재생에너지기사 필기·실기

지원 자격
국민 내일배움카드소지자 / 수강 시 교통비 지급 됩니다.

합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빈, 변*규,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2021학년도 일반고 3학년대상 고교위탁 신입생 모집

[일반고특화] 바리스타&베이커리실무 및 자격취득 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약 10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연계 해주는 과정입니다.

- 위탁반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일반고 고3 예정 학생
- 대상학교 : 제주도에 일반고 및 특성화고 일반학과
- 모집과정 및 인원 : 바리스타&베이커리 실무 및 자격 취득 과정 / 20명
- 위탁반 신청 방법 : 각 학교 진로진학부 또는 담임 교사와 상담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0일 ~ 2021년 3월 21일 (인원초과시 조기 마감)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12월 예정 (1,224시간)
- 교육시간 : 주중 월~금 9:00 ~ 17:00 (예정,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매월 셋째주 월요일은 원적고 등교
- 교육특전
 1. 교육비, 교재비 전액 국비지원(100%)
 2. 훈련 장려금 및 교통비 지급
 3. 체계적인 자격시험 대비 교육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4. 산업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으로 완벽한 취업 준비
 5. 취업상담 및 지원
- 교육강점
 1. 다년간 운영 경험으로 교육행정 편리성 보장
 2. 철저한 학생관리를 통한 복교율 최소화
 3. 전문상담사에 의한 학생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체계적인 상담 가능
- 지원문의 : 064) 725-5545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